

Korea Logistics Association a Report

한국물류협회소식

◆ 김창묵 사장, 이강성 사장 협회 회장단 영입

2003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추진사항과 2003년도 회원사 회비납부사항, 물류연구회 운영, 제6차 정책토론회, 물류관련 규제완화방안 건의, 산자부 기술표준원의 학술용역 수주 및 계약체결 등 2003년도 1/4분기 주요추진실적을 보고했다.

이와함께 2/4분기 업무진행계획도 함께 보고했다. △5월 21일 개최된 제7차 정책토론회 △2/4분기 물류본부장/부서장 포럼 개최 △물류시스템/기기, 설비운용론, 물류코스트 매니지먼트와 전략적 삭감실무 등의 교육강좌실시 △2003년 제11회 한국물류혁신대회 개최준비 △국내외 벤치마킹연수 △물류연구회 등에 대한 업무계획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서병륜 회장을 비롯해 농협유통 김규석 사장, 대신정보통신 이재원 사장, 리테일 네트워킹 허진우 기술소장, 한국로지텍 홍진기 이사, 진양로지스틱스 정일화 사장, 오뚜기 물류서비스 강세영 사장, 코리아코프 김정식 사장 그리고 협회의 신유균 전무이사가 참석했다.

(사)한국물류협회(회장 서병륜)는 이사회를 걸쳐 (주)양지물류 김창묵 사장과 (주)TL코리아 이강성 사장을 협회 이사로 영입하였다.

물류협회는 지난 3월 28일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강남300컨트리를에서 2003년도 제1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또 협회 제2대 회장인 김여환 고문을 상임고문으로, 임효진 전 한국산업단지 공단 이사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물류협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오는 8월 24일 실시되는 제7회 물류관리사자격시험에 대한



김 창 묵
(주)양지물류 사장



이 강 성
(주)TL코리아 사장



김 여 환
상임고문



임 효 진
고문

◆ 물류관련 자료는 한국물류협회 홈페이지에서…!!

(사) 한국물류협회 홈페이지 새롭게 단장

(사) 한국물류협회(회장 서병륜)는 협회관련 소식과 물류관련 자료를 보다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kola.or.kr)를 새롭게 개편했다.

지난 4월 1일부로 새롭게 개편된 한국물류협회 홈페이지는 유저(user)가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지 못하던 기존의 홈페이지를 보완해 메인화면에서 원하는 곳을 원클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물류협회 새소식과 공지사항 및 물류관련소식이 메인화면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협회가 주최하는 행사 및 물류전반에 대한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또한 『협회안내』,『회원사 가입』,『물류정책개발』,『물류 혁신대회』,『물류관리사』,『물류교육/연수』,『컨설팅』등 7개 섹션별로 나누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했다.

또 메인화면 왼쪽에는 『국제협력』,『물류연구회』,『물류관련단체』,『물류자료실』,『고객지원』 등의 란을 마련했다. 아시아, 유럽, 북미 지역으로 나눈 『국제협력』은 한국이 부회장국으로 있는 아시아태평양물류 맴 등 국제 물류관련 기관 등을 소개하고 있다.

『물류연구회』는 물류정보화, 물류자동화, 물류표준화, 물류공동화, 물류시스템화 등 총 5개 연구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물류와 관련된 각계 단체들의 홈페이지를 소개 및 링크한 『물류관련단체』, 『물류자료실』, 『고객지원』은 홈페이지 방문자들에게 큰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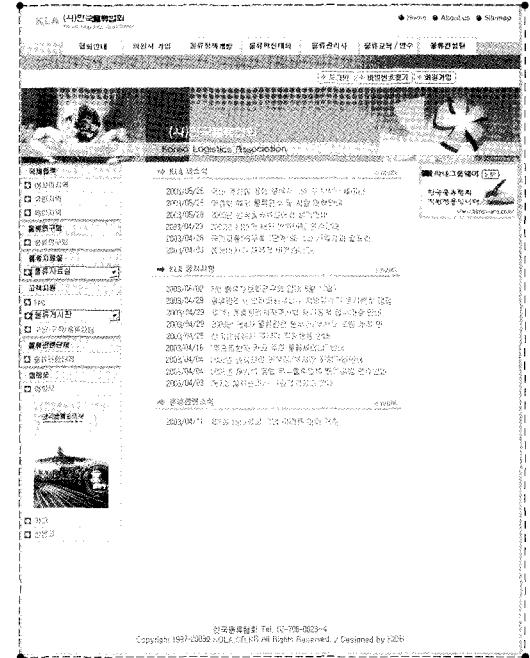
『물류자료실』은 협회가 주관하는 물류부서장포럼 및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물류연구회 자료 등 물류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 연구기관과 대학교 및 물류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제5회와 제6회에 실시된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기출문제가 자료실에 게재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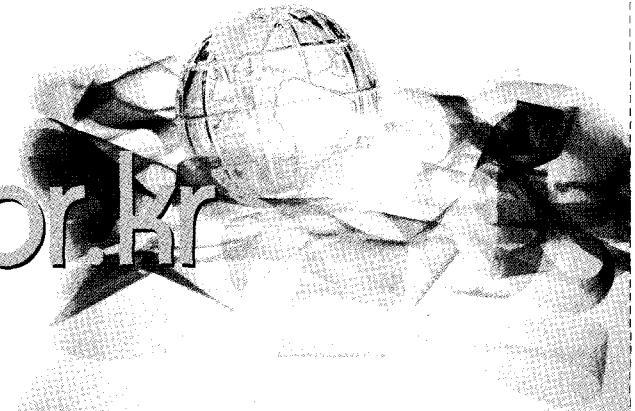
또한 고객지원은 물류협회가 실시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각 사업별로 게시판과 FAQ를 설치해 궁금증을 원클릭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물류관련 회사에 취업을 원하거나 또는 구인을 원하는 업체를 위해서 구인구직 사이트도 신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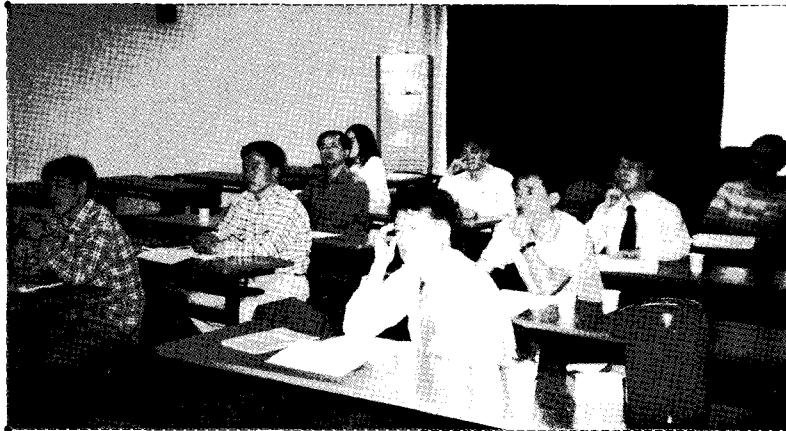
한편·한국물류협회가 발행하는 협회보 『물류』의 게재내용을 책자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도 게재해 ON- LINE 및 OFF- LINE상에서 모두 구독할 수 있는 것도 한 특징이다.



www.kola.or.kr



◆ 물류COST매니지먼트와 전략적 삭감실무… 인기과목 大 성황 KLA 물류능력개발 프로그램 실시



(사)한국물류협회가 물류관련 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물류능력개발 프로그램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물류협회는 지난 3월부터 『물류생산성과 산업 공학론』, 『물류시스템/기기』, 『설비운용론』, 『물류COST매니지먼트와 전략적 삭감실무』, 『재고관리 이론과 실무』, 『국제물류론』, 『수배 송시스템 구축 실무이론』 등의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최근에 개설된 과정중 ‘물류COST매니지먼트 와 전략적 삭감실무’등의 프로그램은 물류업

체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과목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과정은 물류비 관리를 통한 기업이윤창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비용예산, 실적관리 네트워크, ABC를 통한 물류비 산출, ABC원가관리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교육하기 때문에 기업체의 실무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

다른 물류능력개발 프로그램도 기업체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각 기업체가 원하는 시간, 장소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교육도 인기가 높다.

한국물류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사를 비롯해 물류관련 업체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교육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한국물류협회 연수팀(전화 : 02-706-0823)으로 문의하면 된다.

◆ 4PL업체, 차량관제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필수 물류정보화연구회 개최

(사)한국물류협회(회장 서병륜)는 지난 4월 4일 ‘차량관제시스템’이라는 주제로 물류정보화 연구회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물류정보화 연구회는 물류업계 전산담당자, IT업체 관계자 등 실무전문가 30여명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 물류담당 직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날 연구회에는 (주)성우의 설근호 차장이 ‘차량관제시스템 CASE STUDY’, 대신정보통신(주) Mobile사업본부 장동환 과장이 ‘차량관제시스템 사례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설근호 차장은 일본내 식품물류 1위 업체로 냉동·냉장 물류에 강한 면을 보이고 있는 ‘KRS’라는 도매물류회사가 도입한 차량관제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KRS는 공동물류의 기초적인 정보서비스 수단으로 사이버상에서 운임조회, 공차조회, 화물추적 등을 운영하고 있는 공차알선 정보시스템인 ‘QTIS’ 차량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운송업자와 화주에게는 무료로 서비스하고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다. 화물추적을 위해 휴대

전화 및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차와 화물 모두를 인터넷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업들이 차량관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향상하고 차고지내 혼잡해소 및 관리가 원활해지며, 출하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협력업체와의 관리업무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도 출하현황을 유·무선으로 확인통보함으로써 대고객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으며 화주와의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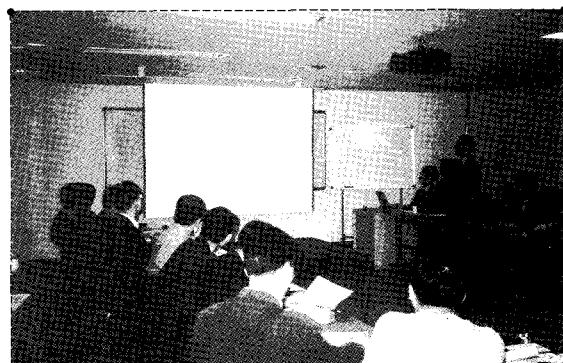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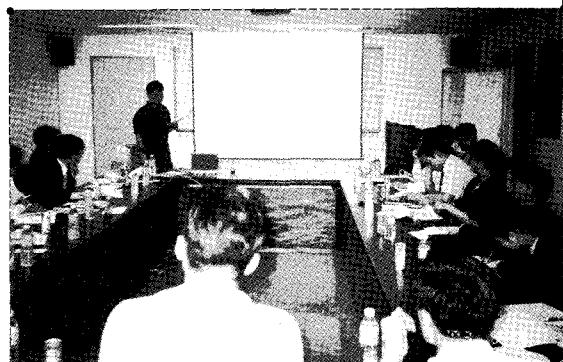
이어 발표에 나선 장동환 과장은 “Supply Chain 및 EC 환경하에서 기업의 물류부담 가중 및 핵심역량 집중으로 물류컨설팅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다”며 “3PL물류업체는 현재 운영체계의 한계극복 및 사업강화 확대를 위해 4PL업체로의 변화를 모색하면서 차량관제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관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효과는 차량별 배차율 통계분석을 통해 배차의 투명성제고와 고정차량의 비율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고정차량의 회전율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 차량에 대한 통제권 강화와,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대고객 서비스의 향상은 물론 기업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단계인 국내 관제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한 해결과제로 △ 단순한 차량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e-Logistics를 위한 기초정보 제고 역할 강화 △관제시스템을 이용하는 업체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유용한 공차화물정보 제공 △4PL 서비스를 지향하는 업체를 위해 물류에 대한 체계적 지식확립을 통한 관제 콘텐츠의 강화 등을 들며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류정보회 연구회 회원 명단>

성명	회사명	직위	성명	회사명	직위
한대석	현대택배	차장	김진영	한국로지텍(주)	과장
이정수	NEOG&P	사장	성용훈	한국로지텍(주)	사원
이점숙	NEO G&P	실장	온재형	Intelligence ware	대표이사
박정언	대신정보통신	팀장	임형균	Intelligence ware	이사
장동환	대신정보통신	과장	김상회	Intelligence ware	차장
설근호	(주)성우	차장	성병각	Intelligence ware	차장
김성주	CJ-GLS	부장	한종훈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역
강명원	CJ-GLS	대리	정현우	(주)두산	차장
나희준	CJ-GLS	대리	박근형	(주)두산	사원
김영섭	KE정보통신	차장	이상훈	SK네트웍	대리
신재천	노틸러스효성	과장	신철호	SK네트웍	대리
정환선	KIFT	부장	이진우	SU	과장
문태식	TL-코리아	실장	최은정	원로지스	대리
허용구	한솔CSN(주)	부장	이동명	로젠플루션	
김명근	한솔CSN(주)	대리	구영훈	물류관리사	
김태정	한솔CSN(주)	대리	이희봉	이일하우스	
최재승	한솔CSN(주)	대리			



◆ WMS도입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고객 서비스 만족. 물류부서장 포럼 개최



고 실시간으로 정보 검색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WMS 도입사례업체로 삼성전자의 토로스물류를 간단히 소개했다.

이 회사 물류정보시스템의 도입배경에는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의 확장개념으로 물류정보시스템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일산 서서울 물류센터의 경우 시스템 도입 결과 업무효율 부문에서 작업결과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현장환경형 업무체계를 구현해 직접적인 인건비를 절감하고 또한 제품 위치파악시간을 40% 이상 단축시켰으며 상시 재고조사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구 성서 물류센터도 패킹시간을 단축시키고 기존의 5시간이상 소요되던 전수조사가 1시간 이내에 이뤄지게 되는 등 시스템 도입 1개월만에 큰 효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물류부서장 포럼 회원명단>

성명	회사명	직위
양훈모	토로스물류	그룹장
제갈봉무	한진택배	부장
엄상섭	삼성전기	그룹장
이배우	신세계이마트	부장
최기종	한국통운	이사
김순조	유한킴벌리	전무
조도현	SK네트웍	부장
김일섭	농협유통	부장
박인술	한국파렛트풀	실장
이상호	세영물류	대표
강갑대	대승항운	실장
김종원	CJ-GLS	과장
허용구	한솔CSN(주)	부장
김영섭	KE정보기술	차장
정동엽	(주)LG화학	부장
정현우	(주)두산BG	차장
문수동	대신정보통신	본부장

성명	회사명	직위
한상동	세창화물(주)	대표
엄주호	대림산업(주)	팀장
홍달표	(주)콜롬버스	부장
계충화	한익스프레스	부장
원종두	현대택배	이사
윤현기	삼성테스코	부장
이해열	한국복합물류(주)	팀장
반영삼	현대하이스코	부장
허창섭	CJ-GLS	팀장
김동수	노틸러스 효성(주)	부장
원유촌	한국컨테이너풀(주)	이사
박주현	(주)두산상사BG	상무
조도현	SK(주)CVO사업팀	부장
신재천	노틸러스 효성	과장
이용	LG화학	팀장
최석용	한국IBM	과장

◆ 물류혁신대회 조직위, 성공적인 대회 위해 노력

조직위원회 1차 모임 5월 22일 개최

(사)한국물류협회는 제11회 2003년 한국물류혁신대회 조직위원회 1차 모임을 지난 5월 22일 마포구에 위치한 훌리 데이인 서울호텔 백합홀에서 가졌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실시된 이날 조직위원회 미팅은 위원들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조직위의 구성과 한국물류 혁신대회의 총괄 및 대회 운영전반에 관한 자문 등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물류혁신대회는 'Get the Spirit of Logistics Innovation'이라는 주제로 『한국물류혁신컨퍼런스』,『국제물류산업 전시회』,『한국물류대상』,『아시아태평양물류연맹 총회』등이 개최되며 국가와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한국NCR 박찬석 부장, 컨퍼런스 심사위원장으로 추대

물류혁신 컨퍼런스 심사위원회 1차 회의 개최

(사)한국물류협회는 제11회 2003년 한국물류혁신 대회 컨퍼런스 심사위원회의 제 1차 회의를 지난 4 월 18일 협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한국물류혁신 컨퍼런스는 2003년 한국물류혁신대 회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15일~17일까지 개최되며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도 국내 최대의 물류전문 컨퍼런스로서 15개트랙 60여개의 컨퍼런트 섹션으 로 진행된다. 국내외 산·학·연·관의 최고 전문가 들이 참여하여 물류이론과 혁신전략, 기업 적용사례 등을 발표하는 실사구시형의 물류혁신과 물류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는 대회이다.



이날 회의는 심사위원간의 인사 및 소개로 시작됐다. 컨퍼런스의 효율적인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NCR의 박찬석 부장을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003년 물류혁신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먼저 2002년 공모된 주제들의 분석에 들어갔다.

이번 대회에는 공모주제 내용의 구체화 및 세분화작업을 다음 2차회의에서 협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컨퍼런스 위원들 각자가 공모주제의 내용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한후 심사회의에 의견을 제시도록 했다.

◆ 제7회 물류관리사 자격 시험 응시자 7030명, 작년보다 9.6% 감소

오는 8월 24일 서울을 비롯한 5개도시에서 실시될 제7회 물류관리사 자격 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7,030명으로 지난 해 7,688명보다 638명(9.6%) 감소했다.

남녀 성별구성비는 남자가 5,548명(78.90%), 여자가 1482명(21.00%)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4,901명(69.70%)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1496명(21.30%), 40대가 416명(5.90%), 10대가 154명(2.20%), 50대 이상이 63명(0.90%)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학재학생이 2426명(34.78%)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졸업생이 1714명(24.38%), 고교졸업이 1,112명(15.82%), 대학원 이상이 210명(2.98%)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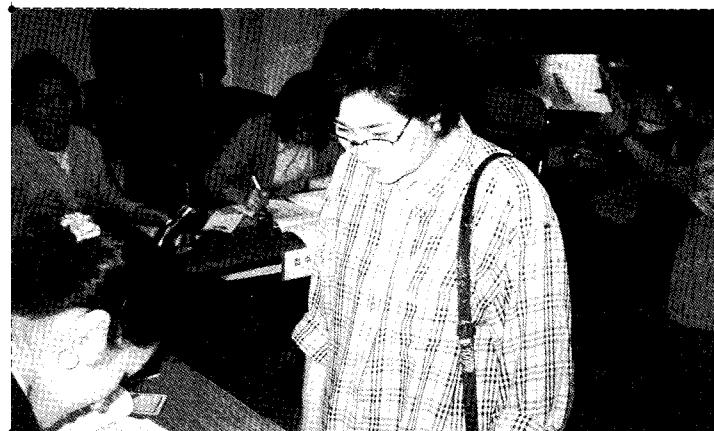
지역별로는 역시 서울이 3,460명(49.22%), 부산 1538명(21.88%), 대전 748명(10.64%), 광주 652명(9.27%), 대구 632명(8.99%) 순으로 집계됐다.

또, 이번 시험에서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등 일부과목을 면제받는 사람은 41명이다.

한편, 제7회 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10월 17일 한국물류협회 홈페이지(www.kola.or.kr)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개별적으로도 통보될 예정이다.

< 제 7회 물류관리사 원서 접수자 분석표 >

구 분		접 수	자
전체인원		7,030	100%
성 별	남	5,548	78.90
	여	1,482	21.10
연 령 별	10대	154	2.20
	20대	4,901	69.70
	30대	1,496	21.30
	40대	416	5.90
	50대	63	0.90
	대학원이상	210	2.98
학 력 별	대학졸업	1,714	24.38
	대학재학	2,726	38.78
	전문대졸업	818	11.64
	전문대 재학	411	5.85
	고교졸업	1,112	15.82
	기타	39	0.55
응시지역별	서울	3,460	49.22
	부산	1,538	21.88
	대구	632	8.99
	광주	652	9.27
	대전	748	10.64



◆ 동북아 물류중심지화를 위한 운송체계 합리화 절실

제7차 물류정책 토론회 성황리 개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국내 및 국제 운송체계의 합리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물류협회는 지난 5월 21일 매일경제 미디어센터 대강당에서 제 7차 물류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한국물류협회,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매일경제신문사, 물류신문사가 주관하고, (주)진양로지스틱스, (주)TL-KOREA, 한국파렛트풀(주)에서 후원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15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정수일 건교부 수송정책실장을 비롯해 진형인 한국로지스틱스학회장, 김진수 매일경제신문 전무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인 한나라당 안경률의원 비서관과 성철기의원 비서관 등도 참석해 정치권에서도 물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입증했다.

한국물류협회의 서병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북아경제 중심화는 우리 경제의 생존전략”이라며 “화물자동차 운송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운송체계를 모달시프트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국내 및 국제운송체계 합리화방안이라는 주제하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조계석 박사가 ‘국가물류체계 혁신을 위한 모달시프트 정책방안’을, 이호영 함부르크항만청 한국대표가 ‘블락 트레인 시스템을 활용한 국제연계수송 합리화 방안’이라는 테마로 발표했다.



◆ 한국물류협회 “제8회 바다의날” 기념 마라톤대회 참석

(사)한국물류협회(회장 서병륜)는 지난 5월 25일 개최된 ‘제 8회 바다의 날’ 기념 마라톤대회에 참석했다.

한국해운신문이 주최하고 해양수산부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한국물류협회를 대표하여 협회 임직원 중 사업팀의 이민수 차장과 이필재 과장, 회원팀의 김광용 기자가 10km코스에 도전해 이차장은 55분 37초, 김기자는 1시간 12분 12초를 기록했다.

한편, 이 대회는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를 출발하여 동호대교를 왕복하는 하프코스와 여의도에서 동작대교를 왕복하는 10Km, 여의도에서 서강대교를 왕복하는 5km 등 세종목으로 진행됐다.